

합성수지 업계동향

수출지역 다변화 · 신수요 창출 등 대책 모색돼야

97년 합성수지 생산은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에 따라 예년에 비해 11.0% 증가한 7541천톤에 달했다. 이것은 PP와 PS 및 ABS 등 수요부진이 연중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6% 하락한 91%를 기록했다.

국내수요는 경기침체와 자금악화에 따른 대형 가동업체들의 연이은 부실화로 수요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친 3962천톤을 기록했다.

가격은 97년 상반기에는 원료납사가격의 고

가격 추세, 동남아지역 수요강세와 더불어 공장 사고 등에 의한 공급감소로 가격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의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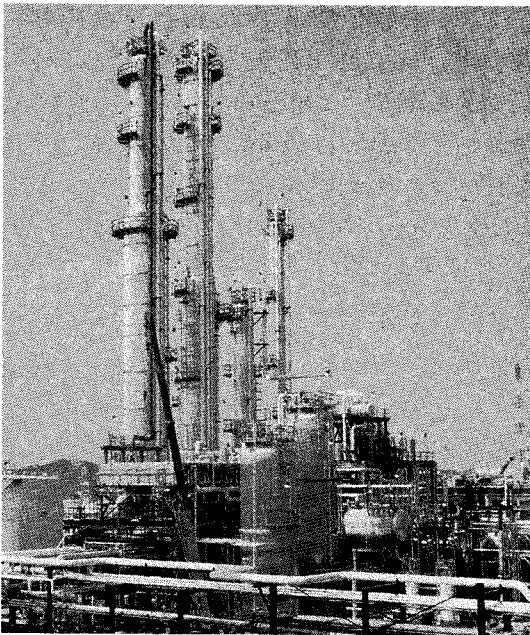
수출은 96년말부터 신증설된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수출여력이 크게 증가되고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화에 따라 수입수요를 증가시킨데다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업체들의 수출확대노력이 두드러져 2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각 업체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EU 및 일본, 미국 기타지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지역도 경제위기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97년 월별 합성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1월은 물량기준으로 전월대비 12.1% 증가한 3682천톤, 금액기준으로는 10.8% 증가한 3097백만불을 기록했다.

1월에 수출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수요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는데다 구정을 앞두고 물량 확보를 위한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월 생산은 가동일수의 감소와 일부제품의 판



▲ 지난 해 합성수지시장은 11% 성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SK(주)의 공장 전경)

매부진 등으로 일부제품의 시설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8% 감소한 604천톤을 기록했다.

2월중 수출은 봄 정기보수를 앞둔 가수요 및 이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물량기준으로는 전월대비 3.5% 증가한 3804천톤, 금액 기준으로는 9.7% 증가한 339백만불을 기록했다.

이 시기 가격상승세에 대해 저항감을 나타내면서 한때 가격이 보험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봄 정기보수를 앞둔 가수요 및 중국정부의 97년 면세수입쿼터 확대설 등에 힘입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월대비 12.1% 증가한 46238천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P의 경우도 중국의 수요증가 및 가격상승으로 85496천불을 수출, 전월대비 3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3월중 생산은 관련제품의 수요호조와 제품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7.9% 증가한 672천톤을 기록했다. 반면 출하는 정기보수 실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재고비축 등으로 전월에 비하여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PE, PP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4월중 생산은 전월비 6.3% 감소된 626천톤을 기록했다. 생산이 전년동월에 비해 큰폭의 증가를 나타낸 것은 전년의 경우 정기보수가 5월부터 실시되었고 하반기에 증설공장의 완공에 따라 생산능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출하는 609천톤으로 전월비 0.1% 증가했고 내수판매는 전월비 3.0% 감소한 316천톤을 기록했다. 또한 수출은 전월비 3.8% 증가한 293천톤을 기록했다.

5월중 합성수지 생산은 전월비 10.5% 감소된 562천톤을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은 5월의 경우 거의 전제품 정기보수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6월중 합성수지 생산은 정기보수 마무리 움직임으로 전월비 2.3% 증가한 576천톤을 기록했다. 생산이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6년 하반기 완공된 증설공장의 가동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된데 따른 것이다.

7월중 생산은 정기보수 종료로 대부분 품목에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4.0%, 전월비 11.8% 증가한 647천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제품의 경우는 국내의 수요의 부진지속과 공장의 트러블 등으로 생산이 다소 감소됐다.

8월중 생산은 정기보수 종료와 함께 수출수요 증가 등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으로 전년 동월에 비하여는 11.1%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1.8% 감소한 636천톤을 기록했다.

제품별로는 폴리에틸렌의 경우 국내의 수요증대에 따라 생산이 증가된 반면 PP와 PS/ABS 등은 시황악화와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전월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9월중 생산은 계절적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황저조와 가동일수 감소 및 추석연휴 등 판매일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동월에 비하여는 14.7% 증가하였지만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640천톤을 기록했다.

제품별로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PVC의 경우 수출수요의 증대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PS/ABS 등은 시황저조로 전년 및 전월에 비하여 모두 부진했다.

10월중 생산은 계절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전

년 동월비 10.7% 및 전월비 3.4% 증가한 661천톤을 기록했다.

PVC의 경우 계절적인 수요증가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를 나타낸 반면 LDPE는 농업용 필름 등 EVA제품의 수요증대에 따른 생산전환으로 다소 감소했다.

11월 중 생산은 전반적인 시황부진과 판매저조 및 가동일수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비 14.9% 증가하였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1.0% 감소한 663천톤을 기록했다. 제품별로는 LDPE와 PS의 경우 농업용필름 등의 수요증대에 따라 전월비 다소 증가했지만 다른 품목의 경우는 대부분 감소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지난해와 올해를 예측해 보면 LDPE(LLDPE 포함)의 97년 국내수요는 수요 감소라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LLDPE의 대체수요 증가와 생산기업들의 적극적인 용도개발에 힘입어 96년 대비 9% 증가한 784천톤을 기록했다.

수출은 생산능력의 확대에 따른 수출여력의 증가로 생산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 96년 대비 15% 증가한 604천톤을 기록했다.

한편 대림산업과 SK의 LLDPE 증설공장 본격 가동과 수요증가 등으로 생산은 1352천톤을 기록 96년 대비 12%증가했다.

98년 LDPE의 국내수요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691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은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자금을 향상 등으로 다소 위축될 수도 있으나 생산기업들이 설비능력 확대에 따른 잉여물량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36%정도 증가

한 820천톤정도로 예상된다.

HDPE 97년 생산은 96년말부터 97년초 완공한 증설설비들의 본격 가동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1539천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수요는 전반적인 내수소비 침체에 따른 필름수요의 부진과 4사분기 IMF의 구제금융 이후 시장 여건의 악화로 가공기업의 부도가 증가하여 전체 수요는 677천톤으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한편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97년 전체로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868천톤을 기록했다.

98년은 추가적인 신증설 설비가 없고 국내의 수요기반의 악화로 전년대비 1% 감소한 1445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수요는 내수소비에 기반을 둔 필름 시장의 침체에 따른 합성수지 보다 수요가 더욱 감소 전년대비 14% 감소한 582천톤으로 예상된다.

PP의 97년 국내수요는 전년보다 9% 증가한 921천톤을 기록했다. 생산은 상반기까지 국내외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국제가격도 비교적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각 사가 생산을 확대하였고 또한 신증설공장의 완공, 가동에 힘입어 전년보다 17% 증가된 2064천톤을 기록했다.

수출은 동남아지역의 자급화 진전 및 하반기 경제위기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추진과 대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년대비 24% 증가한 1160천톤을 기록했으며 수입은 충분한 국내 공급여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규격품의 수입증가와 저가품의 유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7천톤을 기록했다.

98년 국내수요는 97년에 비해 10% 감소한 833천톤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면에서

도 수요의 급감으로 2129천톤에 그칠 것이 예상된다.

97년 PS국내수요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476천톤을 기록했으며 수출은 최소가동률 유지를 위한 수출확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477천톤을 기록했다. 따라서 생산은 전년대비 3% 증가한 940천톤을 기록했고 반면 수입은 수요 감소와 국산제품 대체 확대로 전년대비 36% 감소된 13천톤을 기록했다.

98년 국내수요는 382천톤정도로 보며 수출은 516천톤을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은 내수 감소와 수출부진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한 895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심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PVC 97년 국내수요는 96년 대비 1% 감소한 861천톤을 기록했고 생산은 96년보다 6%증가한 1080천톤을 기록했다. 이것은 생산기업들이 가동률을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수출확대를 통하여 잉여물량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98년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710천톤으로 전망되며 생산은 97년과 비슷한 수준인 1106천톤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출은 시설능력 확대에 의한 잉여물량의 증가와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수출확대 정책으로 97년보다 60%이상 증가한 411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97년 경제는 96년보다 하락된 5.5%를 기록

[표 1] 합성수지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천톤, %)

제 품	생 산(출하)			수 입			직 수 출			국 내 수 요		
	'96	'97	증감률	'96	'97	증감률	'96	'97	증감률	'96	'97	증감률
LDPE	1,207.8	1,352.2	12.0	37.5	35.4	△5.6	526.9	603.7	14.6	718.4	783.9	9.1
HDPE	1,357.9	1,538.5	13.3	6.4	6.9	8.4	639.6	872.1	36.4	724.7	673.3	△7.1
P P	1,763.0	2,063.9	17.1	16.4	16.9	3.5	933.5	1,159.9	24.2	845.9	920.9	8.9
P P	909.9	939.7	3.3	20.5	13.1	△36.0	394.4	476.6	20.8	536.0	476.2	△11.1
ABS	528.1	566.5	7.3	9.7	12.6	28.7	285.6	332.9	16.6	252.3	246.2	△2.4
PVC	1,023.8	1,079.9	5.5	71.7	36.2	△49.5	228.7	255.0	11.5	866.8	861.1	△0.7
소 계	6,790.5	7,540.7	11.0	162.2	121.1	△25.3	3,008.6	3,700.1	23.0	3,944.1	3,961.7	0.4

[표 2] 합성수지 재질별 생산 및 수출입 현황 (98. 1~3월)

(단위 : 천톤, %)

제 품	생 산(출하)			수 입			직 수 출			국 내 수 요		
	'97	'98	증감률	'97	'98	증감률	'97	'98	증감률	'97	'98	증감률
LDPE	333.1	321.4	-3.5	8.7	6.9	-20.9	154.7	181.2	17.1	187.1	147.0	-21.4
HDPE	360.3	398.3	10.6	2.0	0.9	-56.1	177.0	265.8	50.2	185.3	133.4	-28.0
P P	500.8	595.4	18.9	5.6	2.3	-57.9	283.4	401.8	41.8	223.0	195.9	-12.1
P P	232.4	227.5	-2.1	3.7	0.8	-78.2	105.3	155.7	47.8	130.7	72.7	-44.4
ABS	143.0	126.3	-11.7	3.3	1.9	-43.9	81.7	87.3	7.0	64.7	40.8	-37.0
PVC	274.8	228.4	-16.9	11.7	4.8	-58.8	57.4	111.2	93.7	229.1	122.0	-46.7
소 계	1,844.3	1,897.3	2.9	35.0	17.6	-49.8	859.5	1,203.0	40.0	1,019.8	711.9	-30.2

했다. 98년의 한국경제는 예년에 볼수 없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많은 연구기관은 전망하고 있다.

97년 석유화학산업은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원료를 중심으로 일부 신증설 공장의 완공과 적극적인 수출추진 등으로 생산과 수요가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과 연관 산업의 생산 활동 부진, 환율상승에 따른 원료비 부담증가,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물량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수지는 오히려 악화된 한해였다. 이에 98년 석유화학산업은 수급측면이나 경영수지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수급측면에서 보면 그간 높은 신장세를 유지해 온 국내수요가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경기의 급랭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예년에 없는 급속한 감소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 또한 동남아 경제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침체와 주요 수입국들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자급화 진전과 일부품목에서 적극적인 수출추진 등으로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관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큰폭의 마이너스 시장이 예견되고 있어 IMF체제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하에서 어떻게 수급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는가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국내수요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일부품목에서는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일부품목은 가동률을 조정하여 수급을 조절하여야 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료절감과 신규수요 창출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선하 기자

스트레스 '긍정적 사고'로 물자 균형있는 영양섭취 규칙적운동도 도움

IMF 한파로 인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임에 분명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다 요즘에도 극복요령을 터득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 약물에 의존하거나 과식을 습관화하는 건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의 균형있는 영양섭취,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몸에 익히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신체의 증상으로는 입과 목이 마르고 땀이 많이 흘리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설사와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두통, 불면증, 피로감, 목과 어깨결림, 오동, 운동 소화불량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서적인 증상은 불안, 우울, 기분변화, 신경과민, 자존심 저하, 분노와 적대감, 적대감, 직책감 등이 있으며 주의집중력 저하나 건망증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은 스트레스 증대를 적절히 조절해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자세가 필요하다고 고려대 의대 조소행 교수는 강조한다.

- ▲ 현실적인 사람이 될 것 ▲ 슈퍼맨,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는 중동을 버려라 ▲ 명상을 하라 ▲ 마음 속에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 보아라 ▲ 한번에 한 가지 일을 하라 ▲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 취미를 가져라 ▲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라 ▲ 자신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라 ▲ 기쁨 양보하고 윤희성을 가져라 ▲ 시간관리를 잘 하라 ▲ 도움을 청하라

이와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조교수는 충고한다.

- ▲ 흑백논리, 선과 악, 옳고 그름과 같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 부정적인 사고 ▲ 파괴적인 생각 ▲ 시거나 심할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생각 ▲ 완벽주의적 사고 ▲ 남을 탓하는 사고 ▲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느낌이 전적으로 자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생각 등이다.